



영암군은 최근 사흘간 영암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 '건축에서 문화로'를 주제로 '2024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를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건축에서 문화로' 한옥의 새 지평 열다

영암군이 전남도와 함께 개최한 '2024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한옥의 새로운 문화·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영암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 '건축에서 문화로'를 주제로 '2024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를 개최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한옥이 건축을 넘어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시대를 초월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산임을 보여줬다.

또한 대내·외로부터 한옥 비엔날레가 문화 행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재문화체험장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행사 랜드마크인 '문화의 샘' 상량식이 이공복 대목장의 지휘로 진행됐으며 천하제일탈곡작소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탈춤 공연 '비나리'로 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렸다.

광장 옆 전시동 부스에서는 전통 물레, 기와, 외도래 매듭, 한복, 천연염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

영암 한옥문화 비엔날레 성료...문화적 가치·유산 재조명 '문화의 샘' 상량식·탈춤 '비나리' 등 전통·현대 조화 선보

람객들이 한옥과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목재문화체험관 월출관에서는 '한옥을 담은 예술의 조각' 전시와 영상 전시 '빛으로 지은 집'이 관람객들에게 한옥의 예술성을 전달했다.

건축가 김봉렬이 전통 한옥의 아름다

움과 해탈문, 회사정의 구조와 건축 디테일을 조명했다.

전시장에서는 '제1회 전남도 목재누리 페스티벌 목공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열려 목재의 우수성과 전통 목공예의 현대적 계승 방법을 알렸다.

이번 한옥문화 비엔날레에서는 아시아현대대예전 '현대 도에 새로운 지평' 전시도 함께 열렸다.

현대 도예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살필 수 있었던 이 협력 전시에는 단

국대·동덕여대·부산대·서울과기대·서울여대·숙명여대·한국전통문화대·홍익대의 교수·박사·신진작가 등 130여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해석한 도자 작품들이 관람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비엔날레는 한옥이 한국 문화의 본질임을 알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헤리티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했다"며 "2025년에는 더욱 창조적인 문화 비엔날레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2026 Pre 완도해조류박람회' 준비 착착

2026년 5월6일 개막...郡, 해양치유 자원 활용 등 논의

완도군이 2026 Pre 완도해조류박람회 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군정 상황실에서 '2026 프레 (Pre) 완도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 프레 (Pre) 완도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에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26년 5월6일 개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보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박람회 기본계획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박람회는 Pre-EXPO 형식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용역 수행 기관은 보고회에서 박람회 개최 여건, 기본 구상, 행

사장 조성 계획, 콘텐츠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또한 완도군의 해양치유 및 해양바이오산업 등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 가치를 재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완도군은 내년 1월 말까지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계획을 더 구체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2028 국제해조류박

람회 유치를 초석을 다지고, 완도가 국내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완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군은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를 목표로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한 전략·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한반도 마지막 단풍이 머무는 곳..."

망골 해남 두륜산·달마산 만추 정취 가득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머무는 곳, 해남 두륜산(사진)과 달마산이 오색빛깔로 물들고 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평년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11월 초 단풍이 시작된 가운데 망골해남은 한반도를 달려 내려온 단풍물결이 마지막으로 당도하는 곳으로 해남의 명산 두륜산과 달마산에도 만추의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두륜산은 각양각색의 난대림이 터널을 이룬 십리숲길과 구곡구유(九谷九流)가 어우러지는 빼어난 경치로 남도

의 대표적인 가을 단풍 명소로 꼽히고 있다. 천년고찰 대흥사를 비롯한 유서 깊은 문화유적들과 두륜미로파크, 케어빌 등도 위치해 볼거리, 즐길거리도 풍부하다.

또한 망골마을 아름다운 절 미항사를 품고 있는 달마산에도 오색단풍이 내려앉고 있다. 달마산에는 남도명품길 달마에도 만추의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하늘길 양자도솔암을 비롯해 망골 일대와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해남=박필용 기자

나주시, 공공비축미 1만551t 매입 본격화

전년비 10% ↑ ...내달 말까지 매입 예정

나주시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만551t의 공공비축미 매입을 본격화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4년산 공공비축미 8천27t, 시장격리곡 2천524t 등 1만551t을 매입할 계획이다.

일반벼는 총 9천334t으로 산물벼 1천376t과 건조벼 7천958t으로 구분하며 친환경 벼 1천73t과 가루쌀 1천44t은 건조벼로만 매입할 예정이다.

산물벼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읍·면·동별로 지정한 나주시협쌀조합공동

사업법인 DSC시설 5개소, 여주농산RPC, 나주동강평야RPC에서 매입을 완료했다.

건조벼는 앞서 이달 가루쌀 매입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읍·동별 지정된 일자·장소에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비축 일반벼 매입품종은 '산동진', '새청무'이며 가루쌀은 '바로미2'다.

품종검정제도 시행에 따라 매입품종이의 품종을 혼합해 출하하거나 친환경 벼의 경우 잔류 농약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출하 농가는 농식품부 고시 규격품인 새 포장재를 사용하고 건조상태, 중량을 준수해야 한다.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중산정산금 4만원(40kg기준)을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 12월 중 매입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나주=정종환 기자

신안 새우양식장 수질 '양호' 배출수 깎벌 오염 논란 종식

신안군은 17일 "새우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334개소 중 미합격(미운영 등) 양식장 11개소를 제외하고 대다수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적합 246개소(76%) ▲관리 요망 54개소(17%) ▲주의 33개소(7%)로 주의양식장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명령과 함께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6년에 걸쳐 실시한 배출수 수질검사(6회)와 양식장 인근 깎벌 퇴적물 검사(2회)가 95%이상 적합(양호) 판정이 나온 만큼, 새우양식장 배출수가 깎벌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불확실한 추측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함께 양식 새우(사육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심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양훈 기자



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 마을학교 네트워크 파티 '성료'

지역 자원 활용 배움·돌봄 환경 구축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목포교육청의 지원으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1층 유스데이에 '목포마을학교-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마을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배움·돌봄의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교

육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고자 공공성·자발성·공동체성·민주성·지속성의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운영된 프로그램은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마을학교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마을학교 ▲네트워크 파티 등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목포의 미래를 바꾸는 평화·혁신의 목포마을학교 실현을 위해 활동한 청소년들이 소감을 나누

고, 마을학교 활성화에 대한 소감의 장이었다. 학생들은 '마을과 교육을 잇다'를 목표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김강민(목포하당중·3학년) 학생은 "찾아가는 마을학교 수업을 통해 우리가 사는 고장인 목포에 애정심을 갖게 됐으며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무안, 열린어린이집 10곳 선정

3년 운영...보육서비스 질 강화 기대

무안군은 "최근 2024년 열린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하고 선정서 전달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에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무안군은 사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등 세부항목을 심사하고 무안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제이플 어린이집 ▲풍경재 어린이집 ▲산들바람 어린이집 ▲사랑어린이집 ▲남악센트레일 어린이집 ▲초록나무 어린이집 ▲아이숲 어린이집 ▲오룡호반아름꿈터 어린이집 ▲남양호산나공립 어린이집 ▲오룡애듀푸르지오공립 어린이집으로 앞으로 3년간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아이키우기 좋은 무안군을 위해 매년 열린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